

‘더 글로리’ 하도영, 배우 정성일 “전 똑같아요, 제 페이스대로 가죠”

“내 외부가 변한 것 뿐 난 전혀 안 변해”
늦깎이 스타 “스타병 걸릴 나이는 아냐”
다시 공연으로 돌아가 “천천히 가겠다”

“전 안 변했어요. 제 외부가 변한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대중에게 이름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배우를 스타로 만들었다. 배우 정성일(43)도 그 중 한 명이다. 2002년 데뷔해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일했다. 영화·드라마 쪽에선 잘 풀리지 않았지만, 연극·뮤지컬 등 공연계에선 연기력을 인정받고 이름도 알렸다. 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배우였지만, 스타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더 글로리’를 통해 이제 누구나 아는 핫한 배우가 됐다. 도쿄 쇼에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다. 최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정성일은 그런데도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해요. 정말 좋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제게 선택권이 생긴다는 게 좋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가면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해지니까요. 제가 좀 무덤덤한가 봐요. 부담스럽진 않아요. 분명 어떤 날엔 ‘날 이렇게 많이 알아보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는데,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활동을 꾸준히 해가면서 정성일은 자신이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아무 것도 아니다’는 걸 깨달았다. 당시 어떤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데, 자신 있게 연기했지만 막상 푸깅이 열리자 정성일은 자기 연기가 맘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 벌써 알았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조금 일찍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 마음, 생활 반경이나 패턴 모두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스타병, 연예인병에 걸릴 나이는 아니잖아요.”(웃음)

다만 예전보다 유명해져서 예전부터 꿈꾸던 걸 하나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연락이 안 되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사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함께 있는 지인과 통화 좀 해달라는 친구의 부탁 등 모두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지만 정말 꿈꿨던 건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과 술마시는 일이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으면, 주변에서 ‘쟤는 뭐데 정성일이랑 술 마시냐고 하는 거요.(웃음) 나 때문에 누군가 뿌듯해 하고, 내가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변하지 않았다”던 그의 말처럼 정성일은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곳인 무대로 돌아갔다. 1월 말부터 연극 ‘뷰티풀 선데이’를, 3월부터는 뮤지컬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 편은 ‘더 글로리’가 공개되기 전에 출연 약속을 했고, 다른 한 편은 ‘더 글로리’ 파트1이 공개된 직후에 출연하기로 했다. 아무리 공연을 오래한 배우라고 해도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이 크게 성공하면 비슷한 역할로 다른 영화·드라마에 나오거나 상대적으로 출연료가 적은 공연보다는 영화관이나 TV로 활동 무대를 옮겨가는 것과는 분명 다른 행보다. 그는 “서두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 페이스대로 갈 겁니다. 영화·드라마 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보려고요. 저한테 있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 소속사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사실 지금까지도 인지도 있을 때 얼마나 굴리고 싶었어요.(웃음) 그런데 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저를 기다려주고 제가 좋은 역할 맡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이제 전 제 할 일만 하면 돼요. 더 열심히 연기 할 겁니다.”



대세 걸그룹 에스파, 8월 日 도쿄돔 입성

2020년 11월 韓 데뷔 이후 2년9개월 만에



은 데뷔 3년 만에 도쿄돔에 입성했다.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콘셉트로 ‘메타버스 걸그룹’을 표방하는 에스파는 한중일 멤버 4인조로 구성됐다. 세련된 외모와 고급 댄스 퍼포먼스, 독창적인 음악을 무기로 한국 주요 음악상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다. 2021년 5월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쇼’ OST를 리메이크한 ‘넥스트 레벨(Next Level)’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 출연했다.

일본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쌓았다. 작년 8월 요코하마에서 연 첫 일본 방문 이벤트엔 2일간 4만명이 몰렸는데 약 92만명의 사전 응모가 쇄도하기도 했다. 5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번 도쿄돔 공연은 필연적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번 도쿄돔 공연은 현재 에스파가 일본에서 열고 있는 아레나 투어 ‘에스파 라이브 투어 2023 ‘싱크 : 하이퍼 라인’ 인 재팬(aespa LIVE TOUR 2023 ‘SYNK : HYPER LINE’ in JAPAN)’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대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일본 도쿄돔에 입성한다.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이후 최단 기간에 오른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스파는 오는 8월 5~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에스파 라이브 투어 2023 ‘싱크 : 하이퍼 라인’ 인 재팬 -스페셜 에디션’(aespa LIVE TOUR 2023 ‘SYNK : HYPER LINE’ in JAPAN -Special Edition-)’을 펼친다. 2020년 11월 디지털 싱글 ‘블랙 팜파’로 한국에서 데뷔한 이후 2년9개월 만에 이곳에서 공연하게 됐다. 스카이스포츠 등에 따르면 기존에 최단기간 도쿄돔에 입성한 해외 아티스트는 러시아 여성 듀오 ‘타투(t.A.T.u.)’다. 이 팀

홍윤화·이혜정VS강지영·허영지, ‘극과 극’ 먹방 여행



이혜정과 홍윤화, 강지영과 허영지가 극과 극 스타일로 미식 여행을 소개했다. 1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배틀트립2’에서는 ‘맛집 격파! 가까운 미식 여행지’를 주제로 여행 설계자 이혜정과 홍윤화, 카라 강지영과 허영지가 출격했다. 이날 이혜정, 홍윤화는 ‘대만, 얼마나 맛있게요’ 투어로 대만을 소개했고 강지영, 허영지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먹기’ 투어를 통해 일본의 미식 여행을 소개했다. 허영정은 ‘두 분은 대단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라든가 ‘먹는 순간부터 맛있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강지영, 허영지는 영상 공개 전 ‘오늘 그 생각을 깨 드려겠다. 살려서 왔다. 진짜 많이 먹고 왔

KBS 2TV 예능물 ‘배틀트립2’, ‘맛집 격파! 가까운 미식 여행지’ 주제

다며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이혜정, 홍윤화의 대만 타이베이 여행이 공개됐다. 선공개 영상을 접한 이용진은 ‘일 핏 봤는데 식탁이 9번 나왔다’며 감탄해 웃음을 자아냈다. 대만에 도착한 이혜정, 홍윤화는 라오허제 야시장으로 향했다. 홍윤화는 대만에 10년째 거주하며 여행사에 다니고 있는 친인친의 추천 맛집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미술관 빙구프랑 인증을 받은 음식들이 침샘을 자극했다. 이혜정, 홍윤화는 야시장을 구경하며 다양한 음식을 접했고 이혜정은 ‘다섯 발자국도 못 걸었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았다’고 감탄했다. 또 후추빵, 굴곱창국수, 우육면 등 음식을 차례로 맛본 두 사람은 자제한 맛 설명을 더해 실감나는 재미를 선사했다. 둘째 날 두 사람은 아침부터 미술관 식당을 찾았다. 이혜정은 쉬지 않고 먹는 홍윤화의 눈치를 보며 빠르게 먹는데 집중했고 ‘너무 빨리 먹어서 불안해 혼났다’고 고백해 웃음을 안겼다. 특히 홍윤화는 ‘먹은 게 몇 개 편졌다고 밝혀 현장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다음으로 강지영, 허영지의 투어가 펼쳐졌다. 선공개 영상에 성시경은 ‘이건 진짜 맛짱이 다라며 일본 먹거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강지영은 허영지의 의견을 듣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또 일본 유명 코미디언 지인에게 교토 맛집을 물어보며 완벽한 미식 여행을 계획했다. 강지영, 허영지는 먼저 교토의 독특한 비주얼 토티가 돋보이는 덮밥집으로 향했다. 허영지는 “어디 가야 되니?”라고 물어보면 이곳을 말할 것 같다”라며 만족한 맛 평가를 남겼다. 이후 두 사람은 먹거리 천국인 아라시야마 거리로 이동했다. 먼저 유바튀김을 먹은 허영지는 ‘왜 줄 서서 먹는지 알겠다’며 감탄했고 다양한 튀김을 맛본 뒤 아라시야마 거리를 관광했다. 이 가운데 일본 현지인들이 강지영, 허영지를 알아보며 인기를 입증했다. 다음 코스는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투어였다. 두 사람은 인력거를 타고 숲 투어를 했고 일본 가정집 분위기의 카페에서 구운 오당고와 말차를 시식했다. 이후 일본 전통 료칸에 도착한 이들은 온천욕을 즐긴 뒤 30가지 이상의 요리가 코스로 제공되는 가이세키요리를 먹었다. 방송 말미 중간 평가가 펼쳐졌다. 그 결과, 대만이 3대 0으로 승리했고 허영정은 ‘다음 주에 대역전극으로 찾아뵙겠다’고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뉴진스, 3개월 연속 1~3위 싹쓸이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국내 음원 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플랫폼 멜론에서 3개월 연속 1~3위를 싹쓸이했다. 2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의 대표곡 ‘디토(Ditto)’는 올해 3월 멜론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디토’에 이어 ‘OMG’가 2위, ‘하이퍼 보이(Hype boy)’는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멜론 주간 차트 순위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이로써 뉴진스는 멜론의 2023년 1분기를 장악했다. 어도어는 “한 아티스트가 신곡과 전작 구분 없이 차트 최상위권을 3개월 동안 휩쓴 것은 2004년 11월 멜론 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작년 7월 데뷔하자마자 신드롬급 인기를 끌며 단숨에 글로벌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뉴진스는 멜론의 각종 최초, 최장, 최다 기록(단일 곡 기준)을 갈아치웠다. ‘디토’는 멜론 일간 차트서 무려 99일(2022년 12월19일~2023년 3월27일) 동안 왕좌를 지키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멜론의 종전 일간 차트 최다 1위 곡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세운



75회였다. 주간 차트를 놓고 보면 ‘디토(Ditto)’의 14주 연속 1위도 압도적이다. 뉴진스 이전 주간차트 최장 연속 1위 기록은 8주로 윤도현 ‘사랑했나봐’(2005), 박명 ‘마지막 인사’(2007~2008), 소녀시대 ‘지(Gee)’(2009) 정도가 있다. 뉴진스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거뒀다. ‘OMG’와 ‘디토’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각각 6주, 5주 동안 머물며 ‘반짝 인기’가 아님을 증명했다. 해당 차트에서 두 곡의 최고 순위는 74위, 82위(2월 18일 자)였다.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퍼 보이’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 33주 연속 차트인, 이 부문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수 ‘꽃’, 스포티파이 일간 톱송 글로벌 6위...K팝 女솔로 최고

발매 당일 스트리밍 횟수 467만·개설 당일 페이지 팔로워 33만도 기록

그들 ‘블랙핑크’ 지수가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K팝 여성 솔로 신기록을 썼다. 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수가 지난달 31일 발매한 첫 솔로 싱글 ‘미(Me)’의 타이틀곡 ‘꽃(FLOWER)’은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 테일러 톱 송 글로벌 차트 6위에 올랐다.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고 기록이다. 이날 스트리밍 횟수는 467만, 개설 하루만에 끌어 모은 아티스트 페이지 팔로워 수는 33만 명 이상인데 이 역시 K팝 여성 솔로 최고다. 스포티파이는 184개국 4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집계에만 반영되는 주요 플랫폼 중 하나다. 주요 외신들도 지수의 솔로 데뷔에 호평을 쏟아냈다. 영국의 주요 음악 전문 매거진 NME(New

Musical Express)는 “꽃(FLOWER)’의 가사 첫 줄만 보아도 지수가 솔로로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이고 아름다운 운율로 가득하지만 곡의 주제를 리스너들에게 확실히 전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없었던 신선한 음악이다. 지수 특유의 우아함과 창의성, 현대적 요소와 전통미가 모두 담겨있는 역동적인 곡”이라며 “꽃(FLOWER)’은 단연코 올해 최고의 K팝 노래 중 하나다. 앞으로 더욱 만개할 지수의 예술성이 기대된다”고 평했다. 미국 음악 전문 빌보드는 “지수는 이번 앨범을 통해 솔로 가수로서의 역량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미국 음악 전문 롤링스톤 역시 “꽃(FLOWER)’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지수의 향후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는 발매 하루만에 87만6249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K팝 여성 솔로 최초 ‘밀리언 셀러’ 달성도 유력하다.

